

※ 범위 분석 및 총평

1. 출제 영역별 문항 수

대단원 분류	문항수	출제 영역	
고전 문법	1	용비어천가(1)	
이론 문법	2	음운론	음운변동(1)
		형태론	1
		문장론	
어문규정	2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1)
		로마자표기법	1
		외래어표기법	
비문학	7	독해(4) 통일성(1) 추론의 오류(1) 설명방식(1)	
문학	5	고전 문학	소설(2) 운문(1)
		현대 문학	시(1) 소설(1)
어휘	3	한자	한자어(2)
		기타	의미관계(1)

2. 총평

이번 국가직 시험은 문법이 5문항, 비문학이 7문항, 문학이 5문항, 어휘가 3문항 출제되었다.

문법에서는 <용비어천가> 본문과 함께 출제된 고전 문법이 낯설어서 체감 난도가 높았을 것이며, 비문학 문제들은 대체로 긴 지문이 나오면서 시간 분배 면에서 힘들게 느껴졌을 것이다. 문학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없었으며, 어휘에서 한자어는 비교적 평이한 단어로 출제되었지만 반의어의 관계를 분석하는 문제가 출제되어 집중력이 떨어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오답을 고르게 될 확률이 높아지기도 했을 것이다.

문법, 비문학, 문학, 어휘의 모든 영역을 골고루 공부해서 전반적으로 능력을 키워야만 고득점 할 수 있다는 것이 한 번 더 드러난 시험이었다.

그간 열심히 달려온 우리 수험생들 모두 정말 고생했고, 앞으로 남은 시험은 더 전략적인 준비로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문 1.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다음 규정이 적용된 것은?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 ① 독도: Dok-do
- ② 반구대: Ban-gudae
- ③ 독립문: Dok-rip-mun
- ④ 인왕리: Inwang-ri

1. 정답: 2번

문제 유형: 어문규정 - 로마자 표기법

난이도: 하

<정답 해설>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란,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은 단어를 어디서 끊어 읽느냐에 따라 발음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에 혼동을 막기 위해 끊어 읽을 곳에 붙임표를 붙인다.

‘반구대(Bangudae)’는 끊어 읽기에 따라 ‘방우대’로 읽힐 수 있으므로 ‘Ban-gudae’로 붙임표를 넣을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독도’는 붙임표를 써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Dokdo’로 써야 한다.
- ③ ‘독립문’은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가 아니므로 표준발음인 [동님문]에 맞춰 ‘Dongnimmun’으로 적는다.
- ④ ‘인왕리’를 ‘Inwang-ri’로 표기하는 것은 맞지만, 혼동의 우려 때문에 붙임표를 쓴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인 ‘리’를 표기하기 위해 붙임표를 쓴 것이다.

문 2.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문’은 실용 범위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런 현실은 ‘언간’에도 적용된다. ‘언간’ 사용의 제약은 무엇보다 이것을 주고받은 사람의 성별(性別)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15세기 후반 이래로 술한 언간이 현전하지만 남성 간에 주고받은 언간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남성 간에는 한문 간찰이 오간 때문이나 남성이 공적인 영역을 독점했던 당시의 현실을 감안하면 ‘언문’이 공식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실과 상통한다. 결국 조선시대에는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하여 종래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 때문에 내간이 부녀자만을 상대로 하거나 부녀자끼리만 주고받은 편지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16, 17세기의 것만 하더라도 수신자는 왕이나 사대부를 비롯하여 한글 해독 능력이 있는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계층의 남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문 간찰이 사대부 계층 이상 남성만의 전유물이었다면 언간은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 ① ‘언문’과 마찬가지로 ‘언간’의 실용 범위에는 제약이 있었다.
- ②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해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졌다.
- ③ 언간은 특정 계층과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된 의사소통 수단이었다.
- ④ 조선시대에는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2. 정답: 3번

문제 유형: 비문학 - 독해(중심 내용 찾기)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제시된 글은 ‘언문’의 실용 범위에 대한 제약의 예로 ‘언간(언문 편지)’을 들고 있다. 언간은 남성끼리 주고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발신자나 수신자 중 어느 한쪽은 반드시 여성인 특징을 보여 ‘내간’으로 일컬어지기도 했지만(첫 번째 단락), 그렇다고 해서 부녀자만을 상대로 하거나 부녀자끼리만 주고받은 것은 아니라고 서술했다. 수신자가 왕이나 사대부부터 하층민까지 다양한 계층의 남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간은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두 번째 단락)고 서술했다. 따라서 중심 내용은 언간이 특정 계층과 관계없이 이용된 의사소통의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오답 해설>

나머지 선지는 모두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중심 내용’이라 하기에는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것들이다.

(다)의 어미 ‘-면서’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므로 멈추는 동작과 달려오는 동작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멈춘 이후에 달려온다는 의미(선후관계)를 전달하기 위해 ‘-고(서)’ 어미를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가): 보조사 ‘은’은 화제를 강조하는 용법 이외에 이어진 내용과의 대조를 나타내기도 한다. “수학 성적은 참 좋군.”으로 표현하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상반되는 사실(다른 성적은 안 좋다는 사실, 즉 국어 성적은 좋지 않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어지는 “국어 성적도 좋고.”는 앞에서 서술한 사실에 다른 것까지 포함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도’를 사용하여 국어 성적까지 좋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연결된 두 문장이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조사가 아닌 주격조사 ‘이’를 사용하여 “수학 성적의 참 좋군. 국어 성적도 좋고.”라고 고치면, 수학 성적에 국어 성적까지 포함하여 좋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② (나): 큰따옴표와 함께 쓰이는 직접 인용문은 큰따옴표 다음에 반드시 인용 조사 ‘라고’를 써야 한다.

④ (라): ‘진지한 연설’은 국민을 설득하는 수단이 되므로, 자격을 나타내는 기능의 ‘로써’ 대신 수단을 나타내는 기능의 조사 ‘로써’로 바꿔 쓰는 것이 맞다.

문 3. (가) ~ (라)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수학 성적은 참 좋군. 국어 성적도 좋고.
- (나) 친구가 “난 학교에 안 가겠다.”고 말했다.
- (다) 동생은 가던 길을 멈추면서 나에게 달려왔다.
- (라) 대통령은 진지한 연설로서 국민을 설득했다.

- ① (가): ‘수학 성적은 참 좋군.’은 국어 성적이 좋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 ‘은’을 주격 조사 ‘이’로 바꿔 쓴다.
- ② (나): 직접 인용문 다음이므로 인용 조사는 ‘고’가 아닌 ‘라고’를 쓴다.
- ③ (다): 어미 ‘-면서’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고’로 바꿔 쓴다.
- ④ (라): ‘로써’는 자격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므로 수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조사 ‘로써’로 바꿔 쓴다.

3. 정답: 3번

문제 유형: 현대문법 - 형태론(조사와 어미)

난이도: 중

<정답 해설>

문 4. <보기>를 근거로 판단할 때, ㉠ ~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통일성은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관련되는 특성을 말한다. 초고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에는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중심 내용에 부합하는 하위 내용들로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사람들은 대개 수학 과목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수학 시간이 재미있다. ㉠바로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하시는 수학 선생님 덕분이다. 수학 선생님은 유머로 딱딱한 수학 시간을 웃음바다로 만들곤 한다. ㉡쫄리는 오후 시간에 뜬금 없이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자고 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후 어려운 수학 문제를 쉽게 설명한 적도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수학 선생님의 인기가 시들 줄 모른다. ㉢그리고 수학 선생님의 아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는 소문이 나 있다. ㉣내 수학 성적이 좋아진 것도 수학 선생님의 재미있는 수업 덕택이다.

- ① ㉠ ② ㉡
- ③ ㉢ ④ ㉣

4. 정답: 3번

문제 유형: 비문학 - 독해(통일성)

난이도: 하

<정답 해설>

통일성이란, 글을 구성하는 다양한 문장들이 모두 하나의 주제를 향하고 있는 성질을 말한다. 주어진 글의 주제는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하시는 수학 선생님 덕분에 남들이 어렵다는 수학이 글쓴이에게는 재미있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에서 벗어나는 문장을 찾으면 되는데, ㉠의 “수학 선생님의 아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는 소문이 나” 있는 것과 수학 선생님의 수업이 재미있는 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통일성을 해친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수학 선생님의 재미있는 수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주제에 맞는 문장들이다.

수 있는 소재이므로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라 할 수 있지만, (나)의 ‘달’은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후에 눈물 흘리며 바라보는 달이므로 슬픔을 더욱 심화하는 소재이다.

㉡ (가)의 ‘고운 님’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지만, (나)의 ‘아리따운 아가씨’는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대상이다.

㉣ (가)의 ‘장천(長天)’은 ‘먼 하늘’을 의미하므로 임이 계신 곳의 하늘로 볼 수 있지만 임이 머무르는 공간은 아니며, (나)의 ‘문’은 이별 상황에서도 아무 말 할 수 없던 부끄러움을 숨기는 동시에 슬픈 마음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문 5.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내 마음 베어 내어 저 달을 만들고저
구만 리 장천(長天)의 번듯이 걸쳐 있어
고운 님 계신 곳에 가 비추어나 보리라

(나) 열다섯 아리따운 아가씨가
남부끄러워 이별의 말 못 하고
돌아와 겹겹이 문을 달고는
배꽃 비친 달 보며 흐느낀다

- ① (가)와 (나)에서 ‘달’은 사랑하는 마음을 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② (가)의 ‘고운 님’과, (나)의 ‘아리따운 아가씨’는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③ (가)의 ‘나’는 적극적인 태도로, (나)의 ‘아가씨’는 소극적인 태도로 정서를 드러낸다.
④ (가)의 ‘장천(長天)’은 사랑하는 임이 머무르는 공간이고, (나)의 ‘문’은 사랑하는 임에 대한 마음을 숨기는 공간이다.

5. 정답: 3번

문제 유형: 고전문학 - 시조와 한시

난이도: 중

<정답 해설>

(가)는 정철의 시조로 임(임금)에 대한 그리움(연군지정)을 노래한 작품이며, (나)는 임제의 <무어별>이라는 한시로 임과 이별한 아가씨의 애틋함을 노래한 작품이다.

(가)의 ‘나’는 임과 구만 리(정서적 거리감)나 떨어져 있지만, ‘달’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임이 계신 곳에 비추고 싶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반면에 (나)의 ‘아가씨’는 이별할 때 임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중문을 달고 혼자 눈물을 흘리는 소극적인 태도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달’은 멀리 있는 임에게 자신의 사랑을 담아 보여줄

문 6. ㉠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툭밥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그믐처럼 멎은 줄고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릅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짜룩짜룩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 광재구, 「사평역에서」 -

- ① ㉠ - 여러 개의 난로가 지퍼져 안온한 대합실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② ㉡ - 대조적 색채 이미지를 통해, 눈 오는 겨울 풍경의 서정적 정취를 강조하였다.
③ ㉢ - 오랜 병마에 시달린 이들의 비관적 심리와 무례한 행동을 묘사하였다.

④ ㉔ - 화자가 그리워하는 지난 때를 떠올리며 느끼는 정서를 화자의 행위에 투영하였다.

6. 정답: 4번

문제 유형: 현대문학 - 시

난이도: 중

<정답 해설>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는 시골 간이역인 사평역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잔잔하게 그리면서 그들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함께 노래한 시이다.

㉔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라는 구절에는 화자가 그리운 순간들을 떠올리며 난로에 톱밥을 던져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과 사평역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대한 연민이 난로의 불을 따뜻하게 지피는 화자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㉑ - 밖에 흰 눈이 내려 대합실의 유리창마다 얼어 붙어있는 장면과 대합실 안의 톱밥 난로가 지퍼지는 장면을 제시하여, 대합실 밖의 차가운 겨울 풍경과 그러한 차가움을 포근하게 만드는 대합실 안의 톱밥 난로에 대한 이미지를 제시했을 뿐 비유는 드러나지 않는다.

② ㉒ - ‘청색의 손바닥’이란 차갑게 언 손바닥을 의미하며 그것을 ‘불빛 속에 적셔’ 둔다는 것은 난로불에 손을 녹인다는 의미이다. 겨울 풍경의 정취와는 거리가 멀다.

③ ㉓ -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고단한 삶이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 쓴 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로 드러난 것이지, 오랜 병마나 비관적 심리, 무례한 행동 등과는 관계가 없다.

7. 정답: 4번

문제 유형: 현대문학 - 소설

난이도: 하

<정답 해설>

김유정의 <봄봄>은 순박한 시골 남녀의 사랑과 함께 교활한 장인과 어리숙한 데릴사위의 갈등을 보여주는 해학적이고 토속적인 소설이다.

제시된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름인 장인에게 소작농들이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 땅을 경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과 새롭게 땅을 얻어서 경작하려는 사람들이 미리부터 돈, 술 등을 장인에게 주고 다음해에 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압축적 제시이지 뒷거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마름이란 욕 잘 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에서 마름의 특성을 동물의 외양에 빗대어 낮잡아 표현했다.

② “이놈의 장인님”에서 비속어와 존칭어를 혼용하여 해학적 표현을 구사했다.

③ 손버릇이 못된 것, 욕을 잘하는 것, 마름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 등의 여러 정황을 거론하며 장인의 됃됨이가 마땅치 않음을 드러냈다.

문 8.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한자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____(이)란 이익과 관련된 갈등을 인식한 둘 이상의 주체들이 이를 해결할 의사를 가지고 모여서 합의에 이르기 위해 대안들을 조정하고 구성하는 공동 의사 결정 과정을 말한다.

- ① 協贊 ② 協奏
③ 協助 ④ 協商

8. 정답: 4번

문제 유형: 어휘 - 한자어의 표기

난이도: 중

<정답 해설>

④ 協商 맞을(협) 장사, 헤아릴(상):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럿이 서로 의논함.

<오답 해설>

① 協贊 맞을(협) 도울(찬): ㉠ 힘을 합하여 도움.

㉡ 어떤 일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줌.

② 協奏 맞을(협) 아릴(주): 독주 악기와 관현악이 합주하면서 독주 악기의 기교가 돋보이게 연주함.

③ 協助 맞을(협) 도울(조): 힘을 보태어 도움.

문 7.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아세 놓고 욕필이(본 이름이 봉필이니까),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하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읍의 배참봉 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이 마름이란 욕 잘 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에 똑 됐다. 장인에게 닭 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논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똑똑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아앉는다.

- 김유정, 「봄봄」 -

- ① 마름의 특성을 동물의 외양에 빗대어 낮잡아 표현했다.
② 비속어와 존칭어를 혼용하여 해학적 표현을 구사했다.
③ 여러 정황을 거론하며 장인의 됃됨이가 마땅치 않음을 드러냈다.
④ 장인과 소작인들 사이의 뒷거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제시했다.

문 9. 밑줄 친 한자어의 쓰임이 문맥상 적절한 것은?

- ① 초고를 校訂하여 책을 완성하였다.
- ② 내용이 올바른지 서로 交差 검토하시오.
- ③ 전자 문서에 決濟를 받아 합격자를 확정하겠습니다.
- ④ 지금 제안한 계획은 수용할 수 없으니 提高 바랍니다.

9. 정답: 1번

문제 유형: 어휘 - 한자어의 표기

난이도: 상

<정답 해설>

① 校訂 학교(교) 바로잡을(정): 남의 문장 또는 출판물의 잘못된 글자나 글귀 따위를 바르게 고침.

<오답 해설>

② 交差 사궤(교) 어긋날(차) → 交叉 사궤(교) 엇갈릴(차)
'交差'는 벼슬아치를 번갈아 임명한다는 의미이므로 문맥에 맞지 않고, 서로 엇갈리거나 마주친다는 의미의 '交叉'를 써야 한다.

③ 決濟 터질(결) 건널(제) → 決裁 터질(결) 마를(재)
'決濟'는 대금을 주고받아 거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문맥에 맞지 않고,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한다는 의미의 '決裁'를 써야 맞다.

④ 提高 끝(제) 높을(고) → 再考 다시(재) 상고할(고)
'提高'는 쳐들어 높인다는 의미로 흔히 '이미지 제고', '생산성 제고' 등과 같이 쓴다. 주어진 문맥에 맞게, 어떤 일이나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는 의미의 '再考'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는 그 연극단 일원이다. 그러므로 박 씨는 일류급이다.”를 들 수 있다.

- ① ㉠ -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 ② ㉡ - 부패하기 쉬운 것들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 세상은 부패하기 쉽다. 고로 세상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
- ③ ㉢ - 미국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러므로 미국 선수 각자는 세계 최고 기량을 갖고 있다.
- ④ ㉣ - 그 학생의 논술 시험 답안은 탁월하다. 그의 답안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10. 정답: 2번

문제 유형: 비문학 - 논증의 오류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애매어의 오류란 쉽게 말해서 다의어의 의미를 문맥적으로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해 생기는 오류이다. 냉동 보관해야 하는 부패하기 쉬운 것들의 '부패'는 단백질이나 지방 따위의 유기물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분해되는 과정을 뜻하는데, 부패하기 쉬운 세상의 '부패'는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한 것을 의미한다. 같은 '부패'라도 문맥에 따른 이러한 의미 차이가 세상을 냉동보관 해야 한다는 오류를 불러왔다.

<오답 해설>

① ㉠ 우연의 오류란, 쉽게 설명하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와 예외를 모두 같은 상황으로 취급하는 데서 발생하는 오류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의사는 희망을 주기 위해 금방 나을 수 있다는 말을 한다. 그것은 거짓말이지만 일반적으로 남을 속이려는 불순한 의도의 거짓말과는 다르므로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데, 그러한 의사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므로 무조건 나쁘다는 논리를 펼칠 때 발생하는 오류가 우연의 오류인 것이다. 소크라테스도 인간이므로 죽는다는 것은 연역추론의 대표적 유형인 삼단논법으로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므로 우연의 오류와는 거리가 멀다.

③ ㉢ 결합의 오류는 개별적인 것들이 가진 성질이 그것들을 하나로 모아 전체를 구성할 때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오류이다. 그런데 금메달을 딴 팀의 모든 선수가 다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졌다고 보는 것은 전체가 가진 특성이 개별적인 것들에도 모두 해당된다고 보는 오류이므로 결합의 오류와는 반대되는 ㉣의 분해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이다.

④ ㉣ 분해의 오류는 ㉢결합의 오류와 상반되는 것으로 전체가 가진 특성이 개별적인 구성요소들에도 그대로 있을 것이라 여기는 오류이다. 그런데 답안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탁월하기 때문에 전체 답안이 탁월하다는 것은 개별적인 부분들이 가진 특성이 전체를 이루어서도 유지된다는 것이므로 ㉢결합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 10. ㉠ ~ ㉣의 예를 추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논리학에서 비형식적 오류 유형에는 우연의 오류, 애매어의 오류, 결합의 오류, 분해의 오류 등이 있다.

우선 ㉠ 우연의 오류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나 규칙을 우연적인 상황으로 인해 생긴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에만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때 생기는 오류이다. 그 예로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중증 정신 질환자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중증 정신 질환자는 이성적인 동물이다.”를 들 수 있다. ㉡ 애매어의 오류는 동일한 한 단어가 한 논증에서 맥락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사용될 때 생기는 오류를 말한다. “김 씨는 성격이 직선적이다. 직선적인 모든 것들은 길이를 지닌다. 고로 김 씨의 성격은 길이를 지닌다.”가 그 예이다. 한편 각각의 원소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의 전제로부터 그 원소들을 결합한 집합 전체도 역시 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 결합의 오류이고, 반대로 집합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의 전제로부터 그 집합의 각각의 원소들 역시 개별적으로 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 분해의 오류이다. 전자의 예로는 “그 연극단 단원들 하나하나가 다 훌륭하다. 고로 그 연극단은 훌륭하다.”를, 후자의 예로는 “그 연극단은 일류급이다. 박 씨

문 11. 다음 글의 주된 설명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는 실제 생활과 다르다. 즉 실제 생활은 허구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지만 이 재료들이 일단 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되면 그 본래의 재료로서의 성질과 모습은 확연히 달라진다.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을 떠올려 보자. 건축가는 어떤 완성된 구조를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모아서 적절하게 집을 짓게 되는데, 이때 건물이 라고 하는 하나의 구조를 완성하게 되면 이 완성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된 재료들은 본래의 재료와 전혀 다른 것이 된다.

- ①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원근법을 사용하여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 현대 회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인상주의자들이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도 이러한 사실성이었다.
- ②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는 물론 많지만 그중에서도 인물, 배경, 사건을 들 수 있다. 인물은 사건의 주체, 배경은 인물이 행동을 벌이는 시간과 공간, 분위기 등이고, 사건은 인물이 배경 속에서 벌이는 행동의 세계이다.
- ③ 목적을 지닌 인생은 의미 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험난한 인생의 노정을 완주하지 못한다. 목적을 갖고 뛰어야 마라톤에서 완주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 ④ 신라의 육두품 출신 가운데 학문적으로 출중한 자들이 많았다. 가령, 강수, 설총, 녹진, 최치원 같은 사람들은 육두품 출신이었다. 이들은 신분적 한계 때문에 정계보다는 예술과 학문 분야에 일찌감치 몰두하게 되었다.

11. 정답: 3번

문제 유형: 비문학 - 서술 방식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주어진 글은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의 특성을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에 빗대어 설명하였다. 이것은 낯선 대상을 친숙한 대상에 빗대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유추의 방식이다.

③에서도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마라톤에 빗대어 서술하는 유추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과 인상주의 화가들은 모두 사실성을 추구했다는 내용으로 두 대상의 공통점을 서술하는 비교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② 소설의 구성 요소를 인물, 배경, 사건으로 나누었으므로 분석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④ 신라의 육두품 출신 가운데 학문적으로 출중한 자들의 예를 들었으므로 예시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문 1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세잔이, 사라졌다고 느낀 것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이다. 인상주의자들은 순간순간의 감각에만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자연의 굳건하고 지속적인 형태는 소홀히했다고 느꼈던 것이다. 반 고흐는 인상주의가 시각적 인상에만 집착하여 빛과 색의 광학적 성질만을 탐구한 나머지 미술의 강렬한 정열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다. 마지막으로 고갱은 그가 본 인생과 예술 전부에 대해 철저히 불만을 느꼈다. 그는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어떤 것을 열망했고 그것을 원시인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이 세 사람의 화가가 모색했던 제각각의 해법은 세 가지 현대 미술 운동의 이념적 바탕이 되었다. 세잔의 해결 방법은 프랑스에 기원을 둔 입체주의(cubism)를 일으켰고, 반 고흐의 방법은 독일 중심의 표현주의(expressionism)를 일으켰다. 고갱의 해결 방법은 다양한 형태의 프리미티비즘(primitivism)을 이끌어 냈다.

- ① 세잔은 인상주의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 ② 고흐는 인상주의가 강렬한 정열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다.
- ③ 고갱은 인상주의가 충분히 솔직하고 단순했다고 생각했다.
- ④ 세잔, 고흐, 고갱은 인상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각자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12. 정답: 3번

문제 유형: 비문학 - 독해(내용 일치)

난이도: 하

<정답 해설>

③ 글의 중간 부분에서 고갱에 대해 “예술 전부에 대해 철저히 불만을 느꼈다.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어떤 것을 열망했고”라고 서술하였으므로 인상주의가 충분히 솔직하고 단순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잘못된 서술이다.

<오답 해설>

① 글의 첫 번째 문장에서 “세잔이, 사라졌다고 느낀 것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이다.”라고 서술하였다.

② 세잔에 대한 서술 이후에 “반 고흐는 인상주의가~ 강렬한 정열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다.”라고 서술하였다.

④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세 사람의 화가가 모색했던 제각각의 해법은 세 가지 현대 미술 운동의 이념적 바탕이 되었다.”라고 서술하였다.

문 13.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처럼 좋은 걸 어떡해?
- ② 제 3장의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 ③ 공사를 진행한 지 꽤 오래되었다.
- ④ 결혼 10년 차에 내 집을 장만했다.

13. 정답: 2번

문제 유형: 한글 맞춤법 - 띄어쓰기

난이도: 하

<정답 해설>

② 제 3장의 → 제3장의

차례를 나타내는 '제-'는 접두사이므로 뒤에 오는 숫자와 항상 붙여 쓴다.

<오답 해설>

① '걸'은 '것을'로 해석되면 띄어 쓰는데, 주어진 문장에서도 '좋은 것을'로 해석되므로 띄어 쓰는 것이 맞다.

※ 추측이나 가벼운 뉘우침, 아쉬움 등을 나타내는 어미 '-르걸'은 붙여 쓴다.

예) 아까 먹을걸. / 지금쯤 갔을걸?

③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는데, 주어진 문장에서도 진행한 것이 꽤 오래되었다는 시간의 경과가 있으므로 '진행한 지'로 띄어 쓰는 것이 맞다.

※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문맥 이외에 사용되는 '-지'는 어미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예) 그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④ '차'는 용언의 관형형 뒤, 또는 횟수나 주기 등을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10년 차'의 '차'는 주기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명사 뒤에 쓰이는 '차'는 접미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예) 연수차 프랑스에 갔다.

문 14. '깎다'의 활용형에 적용된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교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탈락: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 첨가: 없던 음운이 생기는 현상
-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서 또 다른 음운 하나로 바뀌는 현상
- 도치: 두 음운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 현상

- ① '깎는'은 교체 현상에 의해 '깡는'으로 발음된다.
- ② '깎아'는 탈락 현상에 의해 '까까'로 발음된다.
- ③ '깎고'는 도치 현상에 의해 '깁꼬'로 발음된다.
- ④ '깎지'는 축약 현상과 첨가 현상에 의해 '깁찌'로 발음된다.

14. 정답: 1번

문제 유형: 음운론 - 음운의 변동

난이도: 중

<정답 해설>

① 깎는 ⇨ [깁는] ⇨ [깡는]으로 변화하여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과 자음동화(교체)의 과정을 거친다.

<오답 해설>

② '깎아'는 앞 음절의 받침이 뒤 음절로 연음되어 [까까]가 되므로 탈락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③ 깎고 ⇨ [깁꼬] ⇨ [깁꼬]로 변화하여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과 된소리되기(교체)의 과정을 거치므로 도치 현상을 일어나지 않는다.

④ 깎지 ⇨ [깁지] ⇨ [깁찌]로 변화하여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과 된소리되기(교체)의 과정을 거치므로 축약 현상과 첨가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문 15.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포스트휴먼'은 그 기본적인 능력이 근본적으로 현재의 인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스웨덴 출신의 철학자 보스트롬은 건강 수명, 인지, 감정이라는, 인간의 세 가지 주요 능력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능력에서 현재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를 엄청나게 넘어서는 경우 이를 '포스트휴먼'으로 부르자고 제안하였다.

현재 가장 뛰어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며, 더 이상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노화가 완전히 제거되어서 젊음과 활력을 계속 유지하는 어떤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존재는 스스로의 심리 상태에 대한 조절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피곤함이나 지루함을 거의 느끼지 않으며, 미움과 같은 감정을 피하고, 즐거움, 사랑, 미적 감수성, 평정 등의 태도를 유지한다. 이러한 존재가 어떤 존재일지 지금은 정확하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현재 인간의 상태로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신체나 의식 상태에 놓여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포스트휴먼은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신체를 버리고 슈퍼컴퓨터 안의 정보 패턴으로 살기를 선택한 업로드의 형태일 수도 있으며, 또는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개선들이 축적된 결과일 수도 있다. 만약 생물학적 인간이 포스트휴먼이 되고자 한다면 유전공학, 신경약리학, 항노화술, 컴퓨터-신경 인터페이스, 기억 향상 약물, 웨어러블 컴퓨터, 인지 기술과 같은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 우리의 두뇌나 신체에 근본적인 기술적 변형을 가해야만 할 것이다. '포스트휴먼'은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보았을 법한 슈퍼 인간의 모습을 기술한 용어이다.

- ① 포스트휴먼 개념에 따라 제시되는 미래의 존재는 과학 기술의 발전 양상에 따른 영향을 현재의 인간에 비해 더 크게 받을 것이다.
- ② 포스트휴먼 개념은 인간의 신체적 결함을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 보완하여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에 귀결될 것이다.
- ③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현재 상태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존재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 형태가 어떠할지 여하는 다양한 가능성에 열려 있다.

④ 포스트휴먼은 건강 수명, 인지 능력, 감정 등의 측면에서 현재의 인간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포스트휴먼 사회에서는 인간에 대한 개념이 새로 구성될 것이다.

15. 정답: 2번

문제 유형: 독해 - 추론

난이도: 중

<정답 해설>

② 첫 단락의 내용을 보면 ‘포스트휴먼’은 단순히 신체적 결합을 과학 기술로 보완한 새로운 인간형이 아니라 “현재의 기준으로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이자 “현재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를 엄청나게 넘어서는 경우”의 존재를 뜻한다고 서술하였다.

<오답 해설>

① 마지막 단락에서 포스트휴먼은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슈퍼컴퓨터 안의 정보 패턴으로 살기를 선택한 업로드의 형태일 수도 있으며”,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 두뇌나 신체에 근본적인 기술적 변형을 가한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개선들이 축적된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의 인간보다 포스트휴먼이 과학기술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③ 두 번째 단락의 끝에서 “이러한 존재가 어떤 존재일지 지금은 정확하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현재 인간의 상태로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신체나 의식 상태에 놓여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라고 서술하였으므로, 포스트휴먼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 형태가 어떠한지 여하는 다양한 가능성에 열려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④ 첫 번째 단락에서 보스트롬의 말을 인용하여 “건강 수명, 인지, 감정이라는, 인간의 세 가지 주요 능력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능력에서 현재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를 엄청나게 넘어서는 경우”를 ‘포스트휴먼’으로 부른다고 하였으므로, 포스트휴먼은 현재의 인간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정의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문 16. 반의 관계 어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크다/작다’의 경우,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한다.
- ② ‘출발/도착’의 경우, 한 단어의 부정이 다른 쪽 단어의 부정과 모순되지 않는다.
- ③ ‘참/거짓’의 경우, 한 단어의 부정은 다른 쪽 단어의 긍정을 함의한다.
- ④ ‘넓다/좁다’의 경우,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쪽 단어의 부정을 함의한다.

16. 정답: 1번

문제 유형: 어휘 - 의미 관계

난이도: 상

<정답 해설>

‘반의 관계 어휘’에 대한 설명이므로 반의어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반의 관계는 세부적으로 반대관계(정도 반의어), 모순관계(상보 반의어), 상대관계(방향 반의어)로 나뉜다. 이중 반대관계는 두 반의어 사이에 중간항이 존재하는 관계이므로 두 단어를 모두 부정하더라도 중간항이 성립되어 모순되지 않는다. 모순관계는 두 단어 사이에 중간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 쪽을 긍정하면 다른 쪽은 반드시 부정하게 되는 관계이다. 또 상대관계는 서로를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반의관계로 맞선 방향을 전제로 하여 공간, 인간관계, 이동의 측면에서 대립을 이루는 단어 쌍이다. 두 단어가 동시에 존재해야만 성립이 가능하다.

① ‘크다/작다’는 중간항이 존재하는 반대관계(정도 반의어)이며,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더라도 그 중간항이 성립되어 모순을 피할 수 있다. 즉,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고 서술하여도 그 중간 개념인 적당한 크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모순 없이 내용이 성립된다.

<오답 해설>

② ‘출발/도착’의 경우, 두 단어를 모두 부정하여 출발도 아니고 도착도 아닌 상태라고 하여도 중간항(목적지를 향해 가는 중)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출발/도착’은 상대관계(방향 반의어)이다.

③ ‘참/거짓’의 경우, 어떤 대상이 ‘참’이라면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 ‘거짓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므로 한쪽의 부정이 다른 쪽의 긍정을 함의하는 모순관계(상보 반의어)가 맞다.

④ ‘넓다/좁다’의 경우,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은 상태가 존재하므로 중간항이 성립되는 반대관계(정도 반의어)에 해당하며, ‘넓다’는 것은 동시에 ‘좁지 않다’는 것을 함의하므로 맞는 서술이 된다.

문 17.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말씀을 ㉠ 솔브리 하디 天命을 疑心히실씨 꾸므로 ㉡ 뵈아시니
놀애를 브르리 ㉢ 하디 天命을 모르실씨 꾸므로 ㉣ 알외시니

(말씀을 아뢴 사람이 많지만, 天命을 의심하시므로 꿈으로 재촉하시니
노래를 부를 사람이 많지만, 天命을 모르므로 꿈으로 알리시니)

- 「용비어천가」 13장 -

- ① ㉠에서 ‘-이’는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기능한다.
- ② ㉡에서 ‘-아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기능한다.
- ③ ㉢에서 ‘-디’는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기능한다.
- ④ ㉣에서 ‘-외-’는 사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기능한다.

17. 정답: 4번

문제 유형: 고전 문법

난이도: 상

<정답 해설>

고전 문법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더라도 원문과 현대어 해석을 대조하여 현대 문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답을 추론할 수 있다.

㉠ ‘알외시니’는 해석을 참고하면 ‘알리시니’이다. ‘알리시니’의 ‘-리-’는 현대문법에서 사동접사이므로 ‘알외시니’의 ‘-외-’가 동일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 ‘술북리’는 ‘아월 사람이’로 해석되는데, 이때 ‘술북’을 ‘아월 사람’으로 해석해야 뒤에 오는 ‘이’가 주격조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문맥상 ‘술북’을 ‘아월’로 보고 뒤에 이어지는 ‘이’를 ‘사람’으로 보아야 자연스럽다.

중세국어의 주격 조사는 앞말이 ‘ㅣ’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술북리’의 마지막은 ‘ㅣ’모음으로 끝남.)에는 생략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술북리’의 뒤에 결합할 주격조사는 생략된 것이므로 ‘아월 사람’으로 해석하고, 여기서 ‘-이’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로 보아야 한다.

② ㉢ ‘뵤아시니’의 현대어 해석은 ‘재촉하시니’이므로 ‘뵤아다’를 ‘재촉하다’로 해석하고, ‘-시-’를 높임 선어말어미로 보면 된다. ‘뵤아다’는 ‘재촉하다’의 중세국어 형태이다. 따라서 ‘-아시-’가 아닌 ‘-시-’만 높임 선어말어미로 보아야 한다.

③ ㉣ ‘하디’는 ‘많지만’으로 해석되며, 여기서 ‘-디’는 ‘-지만’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이유’가 아니라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용법과 유사하다.

② 신라인들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송편을 빚었다.

③ 중국의 월병은 한국에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것을 본떠 만든 음식이다.

④ 『삼국사기』에 따르면 점술가의 예언 덕분에 신라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18. 정답: 2번

문제 유형: 비문학 - 독해(내용 일치)

난이도: 하

<정답 해설>

②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에 “이때부터 반달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뜻으로 쓰이며, 그러한 뜻을 담아 송편도 반달 모양의 떡으로 빚었다고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두 번째 단락 첫머리에서 “옛날에 월병은 송편과 마찬가지로 제수 용품이었다. 점차 제례 음식으로서 위상을 잃었지만”이라고 서술하였으므로 월병이 제수 음식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③ 글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한국에서 비빔밥을 만들듯이 중국에서는 월병을 만들 정도로 그것이 의미 있는 음식이라는 서술은 있지만, 한국에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것을 본떴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④ 첫 번째 단락에 점술가가 거북이 등에 쓰여 있는 글귀를 해석하여 신라가 크게 발전할 것을 예언하였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서술이 있다. 이것은 점술가의 예언이 정확하게 들어맞은 것이지 점술가의 예언이 신라를 발전하게 한 것은 아니므로 점술가의 예언 덕분에 신라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문 18.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동양의 음식 중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들이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절 음식 중 하나인 송편은 반달의 모습을 본뜬 음식으로 풍년과 발전을 상징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 의자왕 때 궁궐 땅속에서 파낸 거북이 등에 쓰여 있는 ‘백제는 만월(滿月) 신라는 반달’이라는 글귀를 두고 점술사가 백제는 만월이라서 다음 날부터 쇠퇴하고 신라는 앞으로 크게 발전할 징표라고 해석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점술가의 예언이 적중했다. 이때부터 반달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뜻으로 쓰이며, 그러한 뜻을 담아 송편도 반달 모양의 떡으로 빚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반달이 아닌 보름달 모양의 월병을 빚어 즐겨 먹었다. 옛날에 월병은 송편과 마찬가지로 제수 용품이었다. 점차 제례 음식으로서 위상을 잃었지만 모든 가족이 모여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눠 먹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 때문에 보름달 모양의 월병은 둥근 원탁에 온가족이 모인 것을 상징한다. 한국에서 지역의 단합을 위해 수천 명분의 비빔밥을 만들듯이 중국에서는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월병을 만들 정도로 이는 의미 있는 음식으로 대접 받고 있다.

① 중국의 월병은 제수 음식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 ~ 문 20.]

잔을 씻어 다시 술을 부으려 하는데 ㉠ 갑자기 석양에 막 대기 던지는 소리가 나거늘 괴이하게 여겨 생각하되, ‘어떤 사람이 올라오고.’ 하였다. 이윽고 한 종이 오는데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특이하더라. 엄숙하게 자리에 이르러 승상을 보고 예하여 왈,

“산야(山野) 사람이 대승상께 인사를 드리나이다.”

승상이 이인(異人)인 줄 알고 황망히 답례하여 왈,

“사부는 어디에서 오신고?”

종이 웃으며 왈,

“평생의 낮익은 사람을 몰라보시니 귀인이 잘 잊는다는 말이 옳도소이다.”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낮이 익은 듯하거늘 문득 깨달아 능파 낭자를 돌아보며 왈,

“소유가 전에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궁에 가서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악에 가서 놀았는데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불경을 강론하더니 노부께서 바로 그 노화상이

나?”

중이 박장대소하고 말하되,

“옳다. 옳다. 비록 옳지만 ㉠ 꿈속에서 잠깐 만나본 일은 생각하고 ㉡ 십 년을 같이 살던 일은 알지 못하니 누가 양장원을 총명하다 하더뇨?”

승상이 어리둥절하여 말하되,

“소유가 ㉢ 열대여섯 살 전에는 부모 슬하를 떠나지 않았고, 열여섯에 급제하여 졸공 벼슬을 하였으니 동으로 연국에 사신을 갔고 서로 토번을 정벌한 것 외에는 일찍이 서울을 떠나지 않았으니 언제 사부와 십 년을 함께 살았으리오?”

중이 웃으며 왈,

“상공이 아직 춘몽에서 깨어나지 못하였도소이다.”

승상이 왈,

“사부는 어떻게 하면 소유를 춘몽에게 깨게 하리오?”

중이 왈,

“어렵지 않으니이다.”

하고 손 가운데 돌 지팡이를 들어 난간을 두어 번 치니 갑자기 사방 산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 위에 쌓여 지척을 분변하지 못했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꿈에 취한 듯하더니 한참 만에 소리 질러 말하되,

“사부는 어찌 소유를 정도로 인도하지 않고 환술(幻術)로 희롱하나뇨?”

대답을 듣기도 전에 구름이 날아가니 중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여덟 남자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 김만중, 「구운몽」 -

문 19. ㉠ ~ ㉢을 사건의 시간 순서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배열한 것은?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19. 정답: 3번

문제 유형: 고전문학 - 소설

난이도: 상

<정답 해설>

제시된 내용에는 꿈을 꾸기 전의 일과 꿈을 꾸는 중의 일이 섞여 서술되어 있다. 순서대로 전개하면 꿈을 꾸기 전 있었던 일을 먼저 배치하고, 그 뒤에 꿈을 꾸는 중에 있었던 일을 배치해야 한다.

제시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승상이 술을 마시는 중에 ㉠ 갑자기 석양에 막대기 던지는 소리가 나면서 한 중이 나타났다. 가만히 보니 낮이 익은 중이라서 혹시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서 본 스님이 아닌지를 물었다. 그 중은 웃으면서 승상에게 ㉡ 꿈속에서 잠깐 만나본 일은 생각하고 ㉢ 십 년을 같이 살던 일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승상은, 자신이 ㉣ 열대여섯 살 전에는 부모 슬하를 떠나지 않았고, 이후에 졸공 벼슬을 하여 연국에 사신으로 갔던 것과 토번을 정벌한 것 외에는 서울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찌 같이 살았다고

하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중은 승상에게 아직도 꿈에서 깨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승상은 춘몽에서 깨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중은 곧 돌 지팡이를 들고 난간을 두어 번 쳐서 꿈을 깨게 하였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꿈을 꾸기 전에 현실에서 중과 승상은 ㉢ 십 년을 같이 살았고, 이후 꿈속에서 승상은 ㉣ 열대여섯 살 전에는 부모 슬하를 떠나지 않았으며, 벼슬한 이후로 연국에 사신을 갔던 것과 토번을 정벌한 것 외에 서울을 떠나지 않았다. 승상이 토번을 정벌할 때 ㉡ 꿈속에서 잠깐 중을 만난 적이 있다. 이후 승상이 술을 마시는 중에 ㉠ 갑자기 석양에 막대기 던지는 소리가 나면서 중이 나타났다.

문 20. 밑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승상’은 꿈에 남악에서 ‘중’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낮이 익은 듯하다고 여기기 시작한다.
- ② ‘승상’은 본디 남악에서 ‘중’의 문하생으로 불도를 닦던 승려였음을 인정한 뒤 꿈에서 깨게 된다.
- ③ ‘승상’은 ‘중’이 여덟 남자를 사라지게 한 환술을 부렸음을 확인하고서 그의 진의를 의심한다.
- ④ ‘승상’은 능파 남자와 어울려 놀던 죄를 징벌한 이가 ‘중’임을 깨닫고서 ‘중’과의 관계를 부정하게 된다.

20. 정답: 1번

문제 유형: 고전문학 - 소설

난이도: 중

<정답 해설>

① “소유가 전에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궁에 가서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악에 가서 놀았는데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불경을 강론하더니 노부께서 바로 그 노화상이냐?”라는 ‘승상’의 말을 통해 꿈에 남악에서 ‘중’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낮이 익은 듯하다고 여기기 시작한다는 서술은 맞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제시된 내용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승상’은 중과 자신의 관계도,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아직 깨닫지 못한 채 꿈을 깨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승상’이 꿈을 깨기 전에 정신이 아득해 지면서 중이 환술을 부린다고 생각하여 그 진의를 의심한다고 하면 맞지만, 여덟 남자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이미 꿈을 깨고 난 이후이므로 여덟 남자를 사라지게 한 환술을 부려서 그 진의를 의심하게 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④ ‘승상’이 능파 남자와 어울려 놀던 죄를 징벌한 이가 ‘중’임을 깨달은 부분은 나타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중’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부분도 드러나지 않는다.